

# 서구 시각에서 본 남중국해를 둘러싼 중국의 패권주의 연구

김희열\*

<차례>

- I. 서론
- II. 남중국해 분쟁지역
- III.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패권과 인접국들 사이의 갈등
- IV. 결론

## 국문요약

이 논문은 서구 시각에서 본 남중국해 해양 분쟁에 나타난 중국의 패권주의를 다루고 있다. 또한 남중국해는 중국의 경제 실리적 패권과 미국의 전통적 패권이 서로 충돌하는 헤게모니의 장이 되고 있으며, 중국의 패권주의는 동남아시아뿐만 아니라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군비확장 추세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고 있음도 분석되어 있다. 동남아시아 분쟁국들 가운데 필리핀, 베트남과 중국의 갈등이 첨예화되어 있고, 그 밖에 남중국해 인접국인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캄보디아, 싱가포르, 태국은 남중국해의 분쟁지역인 스프래틀리 제도, 파라셀 제도 및 스카보로 사구에서 소극적 입장을 취하거나 분쟁지역의 직접 이해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갈등에서 비켜 서 있다. 2012년 남중국해를 둘러싼 갈등을 보는 서구의 시각에는 중국이 에너지자원 확보를 위해서 남중국해

\* 제주대학교 인문대학 독일학과 교수

인접국들과 무력충돌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패권 양상을 띠고 있다는 입장이 주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논문은 목차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크게 두 부분, 첫째 남중국해의 분쟁원인과 분쟁국들의 주장과 문제점, 둘째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패권과 인접국들 사이의 갈등, 중국의 경제 실리적 패권주의의 본질 및 이로 인한 미국과의 갈등을 다루고 있다.

주제어 : 남중국해 인접국들 간 갈등,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패권, 중국과 미국의 패권충돌

## I. 서론

남중국해는 태평양의 한 해역으로 2,975,000km<sup>2</sup>(동중국해보다 두 배 이상 큰 면적)의 크기를 가진 영해로서 지구상에서 가장 큰 영해이다. 남중국해는 중국과 대만 이외에 동남아시아 8개국(말레이시아, 베트남, 브루나이,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필리핀, 태국)으로 에워싸여 있으며, 오늘날 가장 중요한 국제 해로로서 해마다 물품 선적한 화물선의 50%가 이곳을 지나고 있다. 그리고 이보다 더 중요한 점은 이 해역에 부존하는 천연가스와 기름이며, 현재 약 “3천만 배럴 석유와 7,500km<sup>3</sup>의 천연가스가 부존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로 인해서 남중국해는 엄청난 정치·지정학적 의미를 지니게 된 것이다.”<sup>1)</sup>

남중국해 인접국들인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태국은 중국과 분쟁이 없고, 스프래틀리 제도, 파라셀 제도 및 스카보로 사구를 둘러싸고 특히 베트남과 필리핀이 미국의 도움으로 중국에 맞서는 형국으로 가고 있다. 그동안 남중국해 갈등완화를 위한 노력도 있었는데, 냉전시

1) [http://www.goruma.de/Wissen/Naturwissenschaft/Weltmeere\\_Meere/Suedchinesisches\\_Meer.html](http://www.goruma.de/Wissen/Naturwissenschaft/Weltmeere_Meere/Suedchinesisches_Meer.html). 접속일: 2012.5.9.

대 이후 중국은 동남아 국가들에 대한 상호신뢰와 선린관계에서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을 추구했으며<sup>2)</sup>, 2002년 중국과 동남아국가연합체(ASEAN)는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평화적으로 그리고 군사 개입 없이 해결해 나가기로 합의했다.<sup>3)</sup> 그러나 2010년 이후 중국이 공세적으로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침체화시키자, 베트남과 필리핀은 미국과의 동맹과 협력을 강화시킨다. 아시아·태평양(이하 아·태) 지역정책을 강화하는 쪽으로 선회한 미국의 오바마 정부는 도움을 요청하는 동남아 국가들과 함께 중국의 패권주의 저지에 적극 나서게 된 것이다. 이로 인해서 중국의 경제 실리적 패권과 미국의 전통적 패권이 남중국해 해양 분쟁을 계기로 서로 충돌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아·태 지역 국가들의 군비 증강으로 이어지는 불편한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

남중국해는 동중국해와 마찬가지로 1982년 제정된 유엔해양법협약(이하 UNCLOS)에 가입한 인접국들 사이에서 UNCLOS에 명기된 대륙붕이나 배타적 경제수역(이하 EEZ) 획정에 관한 당사국 간 또는 국제

---

2) Zhang Liangfu(1995), "Review on the Informal Conferences on 'Settle the Potential Conflict in the South China Sea', *International Politics Quarterly*, p.1.

3) 즉 ASEAN(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국가들과 중국이 합의한 성명서 "The Declaration on the Conduct of Parties in the South China Sea 남중국해에서 관련국들의 처세 성명서"(DOC)를 의미하며, 자세한 내용은 Nguyen Hong Thao(2010): *Ocean Development & International Law*, Hanoi, pp.279-282 참조 ASEAN의 본부는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에 있으며, 이 연합체의 원래 목적은 경제, 정치, 사회 공동협력에 있었고 추후 안보, 문화, 환경 문제로까지 의제가 확대되었다. 1967년 창설 시에는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가 회원국이었던가 1984년 이후 브루나이, 1990년대 들어 베트남(1995), 미얀마와 라오스(1997), 캄보디아(1999)가 회원국이 되었다. 오늘날은 10개국 회원국이 이 ASEAN에 가입되어 있다. 그리고 1994년 ASEAN 주도 하에 창설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으로 확대되어 동아시아 및 태평양 연안 국가들도 포럼에 참가하고 있다.

법에 의한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무력 점령이나 불분명한 역사적 근거를 토대로 영유권을 주장함으로써 해양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남중국해의 경우, EEZ 확정 범위 안에 혹은 그 범위를 넘어서는 수역, 특히 석유와 가스 자원이 매장되어 있는 제도들의 경우, 그 영유권을 둘러싸고 서로의 다른 주장 및 불분명한 증거로 인해서 분쟁 당사국들의 갈등이 첨예화되고 있다. 그런데 영유권 근거가 서로 불충분한 수역의 경우, 중국은 상호 공동협력보다는 국제법상 인정받기 어려운 자국 법, 실질적 점유 또는 논거가 불분명한 역사적 근거 등을 토대로 분쟁지역 및 남중국해 거의 전체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함으로써 갈등을 야기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 논문은 서구의 시각에서 본 최근의 남중국해 분쟁상황과 중국의 패권주의적 입장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있다.

## II. 남중국해 분쟁지역

### 1. 분쟁원인과 과정

중국은 남중국해를 둘러싸고 30년 이상 남중국해 인접국들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면서도 한편으로는 1995년부터 그 인접국들과 공동협력을 통해서 “남중국해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sup>4)</sup>하기 위해서 노력하기도 했다. 그러다가 2년 전부터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공세적 입장 변화로 말미암아 베트남 및 필리핀과의 분쟁이 두드러지고 있다. 그 밖의 국가

---

4) Su Hao & Ren Yuan-zhe(2011), “Drowning the Rocks of Disputes in the Sea of Cooperation: The Role of the South China Sea in the Process of East Asian Cooperation”, *The South China Sea. Towards a Region of Peace, Security and Cooperation*, Tran Truong Thuy (ed.), Vietnam, p.22. 이하 각주 인용 시 책제목으로 함.

들은 현재 분쟁수역과는 직접 연관성이 적거나 없기 때문에 소극적 주장에 머무르고 있다. 남중국해 인접국들의 분쟁원인은 크게 보면, 1) 남중국해가 해외무역의 주요한 국제해로라는 점, 2) 남중국해는 풍부한 어장 자원을 가지고 있는 점, 3)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곳에 가스 및 석유 자원이 부존하는 점이 분쟁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 중국과 남중국해 인접국들 사이의 영유권 갈등은 주로 파라셀 제도(중국명: 시사제도), 스프래틀리 제도(중국명: 난사제도), 스카보로(중국명: 황옌다오) 사구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다. 파라셀 제도는 130여개의 산호섬과 암초로 이뤄진 군도이며, 이 제도를 놓고 중국, 대만, 베트남이 영유권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이 1974년 베트남을 이 제도로부터 축출한 후 실질 점령·관리하고 있다. 스프래틀리 제도(베트남명: 썬엄사 군도, 필리핀명: 카라얀 군도) 역시 수백 개의 암초, 산호초 및 섬들로 이뤄져 있으며, 이 제도를 놓고 중국, 대만,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가 각각 스프래틀리 군도 전체 혹은 부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브루나이를 제외하고 현재 다른 국가들은 각기 이 제도의 일부 섬들을 점령 관리하고 있다. 스카보로 사구는 파라셀 제도에서 필리핀해역에 가까이 있고 필리핀이 관리하고 있는데, 2012년 4월 중국이 이 사구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함으로써 중국과 필리핀 사이에 분쟁이 일어났다.

그동안 분쟁과정을 살펴보면, 1864년 스프래틀리 제도의 몇몇 섬들이 영국 전함에 의해 점령된 후 영국령으로 받아들여졌다. 이로 인해서 말레이시아와 브루나이와 같은 이전 영국 식민지 국가들이 남쪽으로 뻗은 스프래틀리 제도의 몇 개의 섬들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1884년 프랑스가 베트남을 식민지로 만든 이후 파라셀 제도와 스프래틀리 제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했고<sup>5)</sup>, 1933년에서 1955년

까지 프랑스가 스프래틀리 제도를 인도차이나 식민지의 일부라고 천명하였다. 제 2차 세계대전 중에는 일본 해군이 1939년 4월 이 제도를 점령하였고, 이 제도 중 가장 큰 섬인 이투 아바에 잠수함 전진기지를 구축하였다. 1945년 일본이 항복한 이후 1951년 샌프란시스코 평화협정에 의해서 일본은 스프래틀리 제도를 포기했다. 그래서 인도차이나 식민지배 국가로서 프랑스가 다시 이 제도의 소유자가 되었다. 중국 본토에서 국민당이 대만으로 후퇴하는 과정에서 이투 아바를 점령하였으며, 이후 대만이 이 섬을 관리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중국은 1950년대가 되어서야 이 제도에 대한 권한을 주장하였다. 베트남과 벌인 인도차이나 전쟁에서 프랑스가 패배한 이후 프랑스는 이 제도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했고, 1973년 베트남은 내전 중 스프래틀리 군도를 훈령으로 남베트남에 소속시켰다가, 1976년 베트남이 통일된 후 사회주의 베트남이 이 제도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였다. 1992년 중국은 자국 해양법으로 남중국해의 프라타스 제도 (동사), 파라셀 제도 (시사), 매클레스필드 제도 (중사), 스프래틀리 제도 (난사)에 대한 영유권을 명시하였다.<sup>6)</sup>

---

5) Ning Lu(1993), *The Spratly Archipelago: The Origins of the Claims and Possible Solutions*, International Center, Washington, D.C, p.165.

6) Peter Dutton(2011), "Three Disputes and Three Objectives: China and the South China Sea", *The South China Sea. Towards a Region of Peace, Security and Cooperation*, p.60.

## 2. 남중국해 분쟁수역에 대한 분쟁국들의 주장과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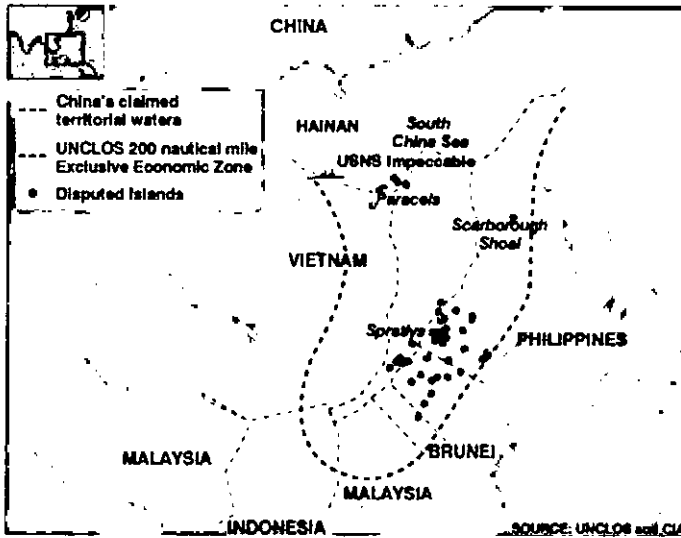


그림 1: 가운데 굵은 선은 중국이 주장하는 관할권 영역, 얇은 점선은 인접국들의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른 200해리 EEZ 라인임.기

남중국해의 분쟁지역에서 중국은 파라셀 제도 이외에 스프래틀리 제도에 7개 암초를 점령하고 있으며, 차이나 위크리에 따르면, 베트남은 스프래틀리 제도의 27개, 필리핀은 9개, 말레이시아는 5개, 대만은 1개를 실질 점령하고 있다.<sup>8)</sup> 스카보로 사구는 필리핀이 관리하고 있다. 위의 지도(그림 1)는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영유권을 요구하는 라인과 각 국가의 UNCLOS에 입각한 영해기선으로부터 200해리 EEZ라인을 보여주고 있다. 남중국해의 분쟁지역에 대한 영유권 주장에 있어서 “베트

7) WELTINNENPOLITIK.NET.2010.8.24. 사진자료 참조

<http://www.weltinnenpolitik.net/24/08/2010/china-offnet-die-buchse-der-pandora>. 접속일 2012. 5.5.

8) Jehnny Erling(2012), “Rote Linien im ‘brodelnden’ Südchinesischen Meer.” *Die Welt*. 2012.8.21.

남, 대만, 필리핀, 말레이시아와 브루나이가 확장된 해안선을 주장하고 있고 UNCLOS에 의해서 보장되는 EEZ를 주장하고 있다.”<sup>9)</sup> 이 지도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중국은 남중국해 거의 전 수역을 자국의 관할권에 놓여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남중국해 해양 분쟁이 격화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

### 1)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과 문제점

중국은 남중국해 해역 거의 전체에 대한 권리 주장의 근거로 크게 두 가지 점을 들고 있다. 하나는 역사적 근원으로 볼 때 남중국해가 중국에 속한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과거 국민당 정부가 남중국해 다도해 공식지도에 표기한 ‘9개의 저지선들’을 근거로 하여 남중국해 분쟁지역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은 대부분 중국인이 아닌 다른 비평가들은 그 근거가 약하다고 결론짓고 있다.

(중국의) 옛날기록들은 분산되어 있고, 불완전하고, 정기적 점유와 효율적 행정 혹은 주권을 단정 짓는 설득력 있는 증거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이 섬들이 배타적으로 오직 중국의 것이라는 주장은 1928년 발족된 중국의 공식보고서에 의해 더 취약해지는데, 이 문서는 중국영토의 남쪽 끝의 경계가 파라셀 제도(시사군도)로 되어있고, 스프래틀리 제도(난사군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sup>10)</sup>

9) Christoph Hein(2012), “Südchinesisches Meer Säbelrasseln über dem Meer.” *Frankfurter Allgemeiner Zeitung*, 2012.8.9.

10) Lee G. Cordner(1994), “The Spratly Islands Dispute and the Law of the Sea”. *Ocean Dev. & Intl. Law*, Vol. 64, pp.61-62.



중국은 1974년 베트남을 축출한 후 파라셀 제도를 무력으로 점령하였고, 1992년 2월 5일 “해양 영유권과 인접지역에 관한 중국 법”을 공포하면서 스프래틀리 제도를 중국의 영토라고 명시하였다.<sup>11)</sup>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파라셀 제도를 실질적으로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자국해역이라 간주하고, 스프래틀리 제도에 대한 영유권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의 스프래틀리 제도의 영유권 주장은 역사적 근거가 희박하고, 현재 스프래틀리 제도 중 일부를 실질적으로 점령한 것과 자국 법으로 그 제도 전체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할 뿐이다.

또 중국이 영유권 주장의 근거로 삼는 1947년 발표된 ‘9개의 저지선들’은 한국이 과거 이승만 라인으로 한국의 해양수역을 표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UNCLOS가 제정되기 이전 자국의 수역에 대한 표시이다. 당시 중국정부(중국국민당)는 “중국이 통치권을 행사하는 섬들, 작은 섬들, 암초들, 사구들 및 인접해역 등의 경계를 나타내는 11개의 저지선들을 사용해서 남중국해의 다도해 공식지도를 발간했다.”<sup>12)</sup> 이들 저지선들 중에서 통킨 만에 있는 두 개의 저지선들은 나중에 배제되어서 이 지형은 ‘9개의 저지선들’로 알려졌다. 1984년 중국 광저우 남중국해 해양연구소가 출판한 수심 측량 차트에는 남중국해의 거의 전 지역을 커버하는 ‘9개 저지선들’이 포함되어 있다.<sup>13)</sup>

그밖에 1992년 5월 중국은 크레스톤 에너지 회사에 방야드 사구와

11) Mark J. Valencia/ Jon M. Van Dyke/ Noel A. Ludwig (1999), *Sharing the resources of the South China Sea*.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p.22. 이하 각주에서는 책 제목으로 표기함.

12) Pan Shiyong(1994), “South China Sea and the International Practice of the Historic Title”,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Conference on the South China Sea*, Sept. 7-9, p.5.

13) Daniel J. Dzurek(1994), “Southeast Asian Offshore Oil Disputes”, *Ocean Yearbook* 11, p.157.

프린스 웨일즈 사구(두 곳 모두 베트남에 의해 점유) 사이의 7,347평방 해리의 석유탐사를 위한 채굴권을 허용하였는데, 그 근거가 바로 이 '9개의 저지선들'이다. 그런데 중국의 탐사지역은 베트남 연안의 160해리 안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베트남은 즉각적으로 이에 항의 했다. 지리적으로 보면 스프래틀리 제도가 중국보다는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베트남에 더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1994년 7월 스프래틀리 제도 모두를 자국 영토로 주장하는 지도를 배포하면서, 중국이 사실상 남중국해 전역에 대한 권한이 있음을 다른 나라에 시사하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인도네시아가 역손사에 개발을 의뢰한 나투나 가스 지역도 들어 있어서 중국의 주장에 강력히 반발 했다.<sup>14)</sup> 또한 2012년 4월 필리핀과 첨예하게 갈등을 빚은 스카보로 사구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 역시 이 '9개의 저지선들'에 입각하고 있다. 그러나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의 근거로 역사적 근원이나 '9개의 저지선들'을 들고 있지만 이것은 사실상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현재 남중국해 분쟁에 있어서 대만의 참여는 남중국해 문제를 훨씬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대만은 그동안 중국전역에 대한 합법정부임을 주장해 왔으며, 1947년 '9개 저지선들'이 포함된 지도를 발간한 중국국민당 정부의 정통후계라고 주장한다. 대만은 1993년 3월 1일 스프래틀리 제도, 파라셀 제도, 매클레스필드 제도, 프라타스 제도 등에 대한 통치권을 주장하는 "남중국해 정책 가이드라인"을 채택하면서 역사적 수역 한계안의 남중국해는 중국공화국의 관할권 하의 해역이며 이에 대한 모든 권한은 대만이 소유한다고 주장했다.<sup>15)</sup> 중국과 대만이 남중국해

14) John McBeth(1995), "Oil-rich Diet", *Far Eastern Economic Review*, April 25, p.28.

15) *Sharing the resources of the South China Sea*, p.29에서 재인용.

분쟁에 공동으로 영유권 주장을 하고 있으나 대만과 중국 사이의 정통성에 대한 내부 갈등상황은 분쟁당사국 간의 협상에 어려움을 더해 주고 있다.

## 2) 베트남과 필리핀의 스프래틀리 제도 영유권 주장과 문제점

베트남은 1974년 파라셀 제도에 대한 중국의 점령 후에도 지속적으로 파라셀 군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이 파라셀 제도를 실질적으로 점유한 상황은 베트남에게 크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베트남은 스프래틀리 제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데, 7세기의 지도에 이 분쟁지역들이 베트남의 영토로 표시되어 있고, 15세기 문서에는 스프래틀리와 파라셀 제도들이 베트남 영토로 기록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1884년 프랑스가 베트남에 보호령을 수립하고 스프래틀리와 파라셀 제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했으며, 프랑스가 물러난 후 독립국이 된 베트남이 과거의 모든 권리를 가진다고 주장한다.<sup>16)</sup>

베트남은 현재 스프래틀리 제도에서 가장 많은 섬들을 점령하고 있는데, 1973년 이후 스프래틀리 다도해의 20여 개 이상의 작은 섬들에 수비대를 계속 주둔시키고 있다. 남중국해 인접국들 사이에서 EEZ 경계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 지역 주위의 어떤 구역도 영해로 제한될 수 없다는 것이 베트남의 입장이다. 베트남은 UNCLOS에 입각해서 영해기선으로부터 200해리 EEZ에 대한 권한이 부여되어야 하며, 200해리 이상은 국제 해저당국에 의해 관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베트남은 자국의 연안으로부터 남동쪽으로 연장된 200해리 이상의 대륙붕을 주장

16) *Sharing the resources of the South China Sea*, p.30.

하는데, UNCLOS 76조 3항과 8항에 따르면 자연적으로 연장된 대륙붕은 최대 350해리까지 허용되지만 사전에 대륙붕경계획정위원회의 결정이 있어야 EEZ가 350해리까지 효력을 발생할 수 있다.<sup>17)</sup> 그러나 1982년 베트남이 자국의 해안선에 입각한 직선 기선들 중 일부는 UNCLOS의 관련 조항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베트남은 기선들을 재조정해왔다.<sup>18)</sup>

현재 베트남에 유리한 점은 스프래틀리 제도의 많은 섬을 점유하고 있는 것이며, 베트남은 남중국해 관련분쟁이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해결되기를 바란다.<sup>19)</sup> 결론적으로 본다면, 스프래틀리 제도에 대한 베트남의 영유권 주장은 역사적 근거보다는 EEZ의 관점에서 그 정당성을 얻을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EEZ 200해리를 넘는 수역의 경우 어느 나라도 그 영유권을 확보할 증거를 내놓지 못하고, 공동협력이나 타협도 나오지 않는 점에 있다. 그밖에 베트남은 여러 차례 중국과 해양 분쟁을 겪으면서 2012년 6월 하순 스프래틀리와 파라셀 제도가 “하노이의 자국 영토라는 것을 천명하는 법안을 결정하였다.”<sup>20)</sup> 베트남 역시 중국과 마찬가지로 자국 법에 의한 영유권을 강화하고 있다.

필리핀이 카라얀 (스프래틀리) 군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근거는 1956년 필리핀 국민인 토마스 콜마가 최초로 이 섬들을 발견했고, 이것을 1978년 마르코스 당시 대통령이 필리핀 영토의 일부로 편입시켰

17) UNCLOS(1982), Article 76 (3, 8).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Oceans and Law of the Sea. Division for Ocean Affairs and the Law of the Sea.* p.47.

18) *Sharing the resources of the South China Sea*, p.32.

19) *Ibid.* p.33.

20) Steffen Richter(2012), “Südchinesisches Meer: China demonstriert seine Macht mit einem Fischerdorf.” *Zeit Online.* 2012.7.24.

다는 것이다. 필리핀은 스프래틀리 제도가 필리핀 본토와 인접해 있다는 점, 이 지역이 국가안전과 생존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점, 2차 세계대전 이후 이 지역이 방치되었다는 점, 몇몇 섬들을 필리핀이 점유한 것은 발견 혹은 관계적 획득의 권한을 가질 수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sup>21)</sup> 또한 필리핀은 대륙붕연장을 주장의 근거로 삼고 있지만 실제 육지의 자연연장 대륙붕이 없기 때문에 이 주장은 인정받기 어렵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스프래틀리 제도에 대한 역사적 근원이나 대륙붕의 자연연장 설에 의거한 필리핀의 영유권 주장 역시 근거가 약하다. 다만, 어느 나라도 스프래틀리 제도 전체에 대한 영유권 주장의 증거가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EEZ와 실질적 점유를 하고 있는 섬들에 대한 영유권 주장만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스카보로 사구는 UNCLOS의 200해리 EEZ 기준으로 본다면 필리핀에 속하며, “이 압초는 필리핀 북쪽 섬 루손으로부터 124해리 떨어져 있고, 중국의 가장 가까운 육지로부터는 550해리 떨어져 있다.”<sup>22)</sup> 중국은 이 사구를 포함 남중국해 거의 전체가 중국에 속한다는 주장을 하기 때문에 분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스카보로 사구 분쟁은 이어도의 경우와 유사하고, EEZ 경계획정 합의가 이뤄지면 해결되는 문제이다.

### 3) 말레이시아와 브루나이의 스프래틀리 제도 영유권 주장과 문제점

말레이시아는 남중국해의 12개 섬들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데, 그

21) *Sharing the resources of the South China Sea*, pp.33-34.

22) Hans Spross(2012), “Spannungen im Südchinesischen Meer”. *DW* 2012.4.18.

중 6개를 점유하고 있고 그 중 3개는 점유되지 않았는데 하나는 필리핀이, 다른 2개는 베트남이 점유하고 있다. 말레이시아의 주장은 1960년 자국이 서명한 영해와 대륙붕경계와 관련된 1958년 제네바 협약에 따른 대륙붕 자연연장과 발견 및 소유 이론 두 가지를 근거로 하고 있다. 자신들의 대륙붕을 말레이시아 연안과 인접한 것으로 정의하면서 1966년과 69년에 자기들만의 대륙붕법을 통과시켰다. 이와 관련된 1966년의 석유 시추법에는 천연자원 탐사와 개발을 관리한다고 되어있다.<sup>23)</sup> 말레이시아의 대륙붕 주장이 가장 분명하게 표출된 것은 1979년 발간된 영해와 대륙붕을 보여주는 지도이다. 여기에는 자신들의 대륙붕 지역을 지정하고 그곳에서 솟은 모든 섬들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sup>24)</sup> 그런데 말레이시아의 주장은 대륙붕 이론으로는 정당화하기 어렵다. UNCLOS 76조 1항은 “육지의 자연연장선에서 대륙붕 가장자리의 외부 모퉁이까지 연장된 해저 지역의 해저 및 하층토”<sup>25)</sup>라고 대륙붕을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대륙붕이 해수면 이상으로 올라온 땅이나 바위들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브루나이는 현재 루이자 리프와 리플맨 사구, 두 곳과 자신의 대륙붕 연장에 근거하여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브루나이가 주장하는 경계선은 영국이 자신들의 보르네오 소유 경계를 대륙붕에서 영해까지 포함한다는 1954년 법령에서 그 유래를 찾고 있다. 브루나이는 1982년에는 200해리 어업구역을, 1984년에는 200해리 EEZ를 주장했다.<sup>26)</sup> 브루나이가

23) R. Haller-Trost(1994), “International Law and the History of the Claims to the Spratly Islands”,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Conference on the South China*, p.32.

24) *Sharing the resources of the South China Sea*, pp.36-37.

25) UNCLOS, Article 76 (1). *Oceans and Law of the Sea. Division for Ocean Affairs and the Law of the Sea*. p.47.

루이자 리프에 대해 권리 주장을 하고 있지만 만조 때만 물위로 나오는 작은 돌 두 개만 있는 이곳을 해역에 대한 권리의 근거로 삼기에는 너무 취약하다. 이것은 UNCLOS 121조 3항에 따르면 바위들로 분류되기 때문에 EEZ나 대륙붕의 기점이 될 수 없다. 또한 “연장된 대륙붕에 대한 브루나이의 주장은 이스트 팔라완이 대륙붕의 자연연장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UNCLOS의 요구 조건에도 부합되지 않는다.”<sup>27)</sup> 이런 점에서 본다면 브루나이의 주장 역시 역사적 근원이 취약하며, EEZ 200해리 범위 안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 뿐이라고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보면, 역사적 문헌만으로는 남중국해 분쟁수역에 대한 각 국가의 영유권 주장은 취약점이 있기 때문에 실효적 지배와 200해리 EEZ 경계획정 합의에 의해서 영유권 분쟁이 해결될 수 있다. 그리고 각 국가의 EEZ 경계 획정 밖에 놓여 있는 남중국해 수역은 인접국들의 공동 관리와 공동 협력을 통한 개발이 가능할 수 있으나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일방적 영유권 주장 앞에서 평화적 해결점을 찾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EEZ 경계획정을 하는 경우, 그림 1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중국은 파라셀 제도를 제외하고 스프래틀리 제도와 스카보로 사구에 대한 영유권 획득은 사실상 불가하기 때문에 협상에 임하는 대신 자국 법에 의한 실효적 지배의 방법에 매진하고 있다.

---

26) Ning Lu, *op. cit.*, p76.

27) *Ibid.*

### Ⅲ.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패권과 인접국들 사이의 갈등

#### 1. 중국의 경제 실리적 패권주의의 본질

중국은 세계 전 지역에서 자국의 경제발전과 성장을 위해서 에너지를 수입해야 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남중국해는 전략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지역이다. 그렇지만 중국은 남중국해 인접국들과 분쟁을 겪으면서도 미국이 남중국해 분쟁에 개입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과거에는 조심하였다.<sup>28)</sup> 그러다가 최근 2-3년 사이 중국이 남중국해 거의 전 수역에 대한 영유권을 다시 주장함으로써 분쟁이 격화되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2012년 10월 현재까지는 중국과의 분쟁 당사국은 주로 베트남과 필리핀이지만,<sup>29)</sup> 과거에는 필리핀과 베트남의 갈등, 말레이시아와 필리핀의 갈등도 간헐적으로 있었다. 독일의 세계정책 Weltinnenpolitik 연구는 2010년 8월 중국이 남중국해의 인접국들과 분쟁을 격화하는 상황을 두고 드디어 “중국이 판도라 상자를 여는 것”<sup>30)</sup>에 비유하였다.

현재 남중국해의 파라셀 군도, 스프래틀리 군도, 스카보로 사구 근처에 석유와 가스 자원이 풍부하게 부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관련 국가들이 서로 경쟁적으로 가스 및 석유자원 탐사에 들어가 있다. 중국의 경우, 시추를 위한 플랫폼까지 최초로 건설하여 2012년 5월부터 가동에 들어가 있으며, 중국은 다른 나라의 탐사 활동에 항의하거나 직접적인 방해를 하기도 하였다.

28) Christoph Prantne(2012), “Konflikt im Südchinesischen Meer: Geopolitischer Testfall”, *DER STANDARD*, 2012.5.11.

29) *South China Sea*. www.eia.doe.gov/emeu/cabs/South\_China\_Sea/pdf. 업테이트 2008.3월. pp.5-6. 참조.

30) *WELTINNENPOLITIK.NET*, op. cit.



중국 선박들은 2011년 3월 스프래틀리의 북동쪽 가장자리에 있는 리드뱅크에서 필리핀 천연가스 부존 조사위탁을 받고 조사를 하고자 했던 영국 에너지기업의 배를 추방했다. 또한 베트남의 초대를 받은 러시아와 인도의 파트너들이 (베트남이 주장하는) EEZ 안에서 석유 탐사를 하자 북경은 이에 대해서 엄중하게 항의하였다.<sup>31)</sup>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동안 남중국해 갈등완화를 위한 노력도 있었는데, 특히 10년 전인 2002년 중국과 ASEAN 국가들은 남중국해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그러다가 이듬 해 중국은 자신들의 입장을 공격적으로 바꾸어서 “남중국해와 그 곳에 있는 섬들은 ‘국가의 핵심 관심사안’이며, 대만과 티베트에 못지않은”<sup>32)</sup>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고 천명했다. 그러면서도 2005년 중국 지도부는 조화로운 세계와 모든 국가들과의 선린관계를 추구한다고 천명했다. 하지만 “2008년에는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외교정책은 경제적 발전을 촉진하는데 있다고 천명했다.”<sup>33)</sup> 이렇게 중국은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항상 양면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중국은 한편으로는 2002년 ASEAN 국가들과 DOC에 서명을 했고, 2005년 3월 필리핀 및 베트남과 함께 “해역지진탐사 공동협정”을 맺는 등 화해적 입장을 보였다.<sup>34)</sup>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남중국해 두 개의 분쟁 제도 전부와 그 사이 놓여 있는 해역이 자신들의 영유권에 속한다고 천명할 뿐만 아니라 중국이 발간한 지도에 이 지역을 자국의 수역이라고 표시하고 있다. 심지어 중국은 자신들의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서 군도

31) Hans Spross, op. cit.

32) WELTINNENPOLITIK.NET, op. cit.

33) Ibid.

34) Su Hao & Ren Yuan-zhe, op. cit., p.23.

들로 고고학자 대표단을 파견하였고 발견된 도자기 파편에 의거해서 중국인들이 오래 전에 그곳에 거주하였음을 증명하고자 하였다.”<sup>35)</sup> 중국은 경제 실리적 그리고 군사적 관점에서 남중국해 제도들을 둘러싼 분쟁을 국가의 명예로운 이슈로 삼고 있다.

현재 남중국해를 둘러싼 갈등은 치열한 자원 확보경쟁과 군비확장을 낳고 있으며, 남중국해가 국제 무역해로라는 관점은 분쟁대상국들 사이에 그리 중요한 화두가 아니다. 특히 중국은 남중국해 헤게모니를 위해서 하이난에 새로운 주요 해군기지를 구축하였고, 이곳은 핵 잠수함 기지이며, 2020년 이후 항공모함 기지가 구축될 예정이다.<sup>36)</sup> 중국은 수년 전부터 해군을 재편하거나 구조를 바꾸고 있으며, 군대를 숫자보다는 질적으로 개편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인력을 줄이면서도 군사 장비를 현대식으로 전환하고 있다. 또 중국은 국가방어구조도 개편하고 있으며, 연안 방어를 새롭게 정비하였다.<sup>37)</sup> 그런데 문제는 가장 최근 중국의 조치들이 남중국해 인접국들과 영유권 갈등을 다룰 때 장애가 된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중국은 통일된 대외정책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으며, 대외 외교정책이 여러 부서에 의해서 서로 경쟁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남중국해 분쟁과 관련해서 2012년 4월 ICG(International Crisis Group)의 ‘아시아 보고서’에서 중국 당국과 기관들 사이의 경쟁과 외교

35) Andreas Seifert(2012), “Konfliktzone im Südchinesischen Meer. Über die Bedeutung des Konflikts um die Spratly-und Paracel-Inseln”. *Informationssstelle Militarisierung (IMI)-Studie*. Nr. 09/2012, Tübingen, p.2.

36) Bronson Percival (2011), “The South China Sea: An American Perspective”, *The South China Sea. Towards a Region of Peace, Security and Cooperation*. p.38.

37) Office of the Secretary of Defense(2012), *Annual Report to Congress: 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22.

부의 구조적 약화가 중국의 통일된 입장을 방해하고 이로써 남중국해 갈등을 침예하게 만드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되어 있다.

중국 정부 기관들 사이의 협조 결여와 갈등을 야기하는 지령들, 각 기관의 힘과 예산을 증대하려는 노력이 남중국해에서의 긴장에 불을 지피고 있다. (...) 그런데 협조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은 외무부이지만 외무부는 다른 기관들을 다룰 수 있는 권한이나 근거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문제가 되는 것은 중국 해군이 해양 분쟁들을 군 현대화의 정당성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삼고 있고, 국수주의자들은 영유권 주장을 둘러싸고 국수주의적 감정을 확산하는 점이다. 그러나 더 직접적인 갈등 위험요소들은 법을 자국에 유리하게 주장하는 일이 많아지고, 준군사적 선박들이 분명하고 합법적인 조적 없이 분쟁 지역들에서 역할을 확대하는데 있다. 이들은 2012년 4월 스카보로 사구에서 일어난 중국과 필리핀 분쟁을 포함해서 가장 최근의 사건들에 관여되어 있다. 앞으로 남중국해 분쟁해결을 위해서는 중국 정부의 여러 다른 단계에 이르기까지 실제 실행권한을 가진 단일화된 실행부서로부터 나오는 지속적인 정책이 필요하다.<sup>38)</sup>

중국에는 외무부와 민족해방군(해군) 이외에도 어업국, 해상 감시국, 관세국, 연안 감시국 및 지방정부들이 분쟁지역의 외교정책에 관여하고 있다. 그래서 “분쟁지역에서의 긴장과 충돌은 이런 조건하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중국기관들의 독자적 ‘무장’을 정당화하는데 쓰이고 있다.”<sup>39)</sup>

한편 중국은 경제 실리적 패권주의를 남중국해 분쟁에서 보이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2012년 5월부터 남중국해 분쟁수역에서 석유 시추를 시작한 것이다. 중국국영석유회사(CNOOC)는 2020년 이전에 남중

38) International Crisis Group(2012), “Stirring up the South China Sea (I)”, *Asia Report* 223. 2012.4.23.

39) Andreas Seifert, op. cit., p.3.

국해에 290억 달러를 투자하여 800개의 원유시추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며, 이 시설들을 이용하여 2015년까지는 2.5억톤, 2020년까지는 5억톤의 원유를 생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sup>40)</sup> 대략 남중국해에 부존하는 석유자원은 중국 연간소비의 60배에 해당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에너지 소비국이다. 북경 국제학 중국연구소의 에너지 전문가 “씨아 위산은 2020년까지 지금의 51%에서 70%까지 에너지수입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sup>41)</sup> 그래서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석유 채굴지역은 에너지 확보 및 주권 사수라는 측면에서 전략적 무기인 것이다. 현재 채굴은 파라셀과 매클레스필드(동사 제도) 사이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채굴 지역은 홍콩으로부터 동남쪽으로 320km 떨어져 있다. 이 수역은 1,500m 깊이에 최대 깊이는 10,000m이다.”<sup>42)</sup>

이렇게 중국은 자국에 필요한 에너지를 바다에서 얻기 위해서 시황을 결코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 가장 먼저 플랫폼 건설을 하고 석유를 캐내고 있다. 필요한 경우, 무력 및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에너지자원을 확보하려는 공세적 자세로 중국은 동중국해에서는 센카쿠 열도에서 멀지 않은 춘샤오 유전지대에서 석유를 시추하고 있으며, 남중국해의 분쟁수역에서도 석유를 생산해내고 있다. 이로써 중국은 한편으로는 공격적으로 영유권 분쟁을 일으키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바로 석유와 가스 자원개발에 착수해서 중국 경제에 필수적인 에너지를 확보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중국이 특히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경제적 필요성과

40) Li Mingjiang(2012), “Chinese Debates of South China Sea Policy: Implications for Future Developments,” *RSIS Working Paper*, No. 239, S. Rajaratnam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Singapore, p.21.

41) Christian Geinitz(2012), “Tiefseebohrung China sichert sich im Meer Öl und Einfluss.” *Frankfurter Allgemeiner Zeitung*. 2012.5.20.

42) Ibid.

실용성에 입각한 새로운 패권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의 심각성은 중국이 분쟁을 오래 끌면서 유전개발을 하는 경우, 그 자원은 고갈될 수 있다는 점이다.

## 2. 2012년 7월 아세안 외무장관 회의

이번 제 19차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은 2012년 7월 9일부터 13일까지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렸다. 이 회의에는 ASEAN 10개 회원국뿐만 아니라 태평양 연안국들의 외무장관도 회의에 참여하였다. 특히 남중국해를 놓고 분쟁을 벌이고 있는 ASEAN 회원국들, 그 중에서 필리핀과 베트남은 공동선언을 통해서 중국의 일방적 영유권 주장을 저지해 보려고 하였다. 그러나 중국에 우호적인 ARF 개최국 캄보디아가 45년 만에 처음으로 이 협의체의 공동선언 채택에 반대하였다. 이러한 교착상태에는 직·간접적으로 미국 또한 영향을 끼쳤다. 미국은 중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2012년 7월 ARF에서 ASEAN 국가들의 다자간 협상을 하도록 유도하였지만, 이에 대해 중국은 관련국 간의 협상문제가 기 때문에 포럼의제가 될 수 없다고 반발하였다.<sup>43)</sup>

ASEAN 외무장관회의에서 몇 달 전 스카보로 사구에 대한 관할권을 중국이 공세적으로 요구함으로써 분쟁을 경험한 필리핀은 중국의 일방적 독주를 막기 위해서 '남중국해 행동수칙'(COC: Code of Conduct in the South China Sea)을 공동성명으로 채택하도록 촉구하였다. 반면 중국의 외무장관은 관련회의에서 스카보로 사구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은 확고하며 이와 관련한 어떤 분쟁도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43) Peter Symonds: "ASEAN-Gipfel scheitert an Konflikten ums Südchinesische Meer". *World Socialist Web Site*. wsws.org. 2012.7.17.

필리핀이 사태를 명확히 파악하고 분노하는 일을 멈추면 좋겠다고 언급하였다. 중국은 ASEAN 회원국은 아니지만 “아세안지역안보포럼에 속해 있다.”<sup>44)</sup> 이 포럼은 “신뢰구축조치 증진 및 예방외교 메커니즘 개발을 통해 역내 분쟁을 해결하고 포괄적 안보를 촉진할 목적으로 1994년”<sup>45)</sup> ASEAN의 주도하에 만들어졌다.

이번 ASEAN 회원국들의 공동성명 채택이 실패하자 필리핀 외무장관 알버트 델 로사리오 는 남중국해 지역에서 중국의 패권은 아·태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저해하는 위협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협상 “과정 중에 생겨나는 점점 격화되는 긴장들이 조정되지 못할 때는 아무도 원하지 않는 물리적 싸움으로 고조될 수 있다”<sup>46)</sup>고 말했다. 이 포럼에서 필리핀과 베트남이 COC을 제정하여 공동성명에 넣을 것을 강력히 주장하였으나 결국 의장 성명을 발표하는 것으로 끝났다. 이 COC는 2002년 11월 중국과 ASEAN 10개국이 합의한 내용인 DOC 선언 및 UNCLOS에 바탕을 둔 것이었으나 중국과 우호적 관계에 있는 태국,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가 반대했고,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브루나이는 중립 입장을 보임으로써 공동성명은 실패하였다. 이로 인해서 남중국해 분쟁의 평화적 해결은 다시 난항을 겪고 있다.

### 3. 중국과 미국의 패권주의 충돌

스카보로 사구를 둘러싸고 2012년 4월 8일 필리핀과 중국의 분쟁이 첨예화된 이후 현재 남중국해는 중국의 경제 실리적 패권과 미국의 전통

44) Ibid.

45) 업상윤(2012): “프놈펜 ARF 외교장관회의와 동아시아 안보정세”. *정세와 정책* 2012.8. p.9.

46) Peter Symonds, op. cit.

적 패권이 충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중국의 경제성장과 중국군의 무장에 대해서 불편함을 보이는 ASEAN 국가들은 중국이 추구하는 경제 실리적 패권 앞에 무력함을 느꼈으며, 중국에 대한 견제로서 미국이 이 지역에 존재하기를 바라는 상황이 되었다. 남중국해 해양 분쟁은 중국이 영유권 주장들을 둘러싼 혼돈을 해소하지 않는 한 갈등이 고조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서 분쟁당사국들의 정찰선, 어선, 순시선들은 늘 충돌위험을 안고 있다.

실제 중국군함들은 2011년 2월 남중국해에서 베트남 어부들을 호위하는 베트남 전함을 위협했고, 같은 해 3월 중국 배들이 필리핀 석유탐사선을 공격하였다. 5월에는 베트남과의 갈등이 다시 격화되었는데, 베트남이 미국석유회사에게 분쟁지역에서의 탐사허가권을 내주자 중국 배들이 탐사선의 케이블을 절단해 버렸다. 중국과 베트남 사이의 갈등이 격화되자 2011년 9월 말 중국 관영지 「글로벌 타임스」에 중국 정치분석가 롱 타오가 이제 중국은 분쟁대상국들에게 군사적 교훈을 보여줄 때가 되었다고 선동적인 글을 실었다. 그는 베트남과 필리핀과 별이는 제한된 전쟁은 이 국가들의 「공격적 태도」<sup>47)</sup>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 것이라고 썼다.

이러한 상황은 베트남과 필리핀 정부로 하여금 더욱 더 미국에 의지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중국의 패권주의로 말미암아 남중국해 분쟁에 미국이 개입하게 됨으로써 미국의 영향력과 역할은 더욱 「상황을 첨예하게 만들고 있다」<sup>48)</sup> 이점에서 독일의 한 언론은 남중국해가 「강대국들의 육조」<sup>49)</sup>가 되고 있다고 비유적으로 표현하였다. 또한 중국의 공세적

47) Long Tao(2011), "The Time to Use Force Has Arrived in the South China Sea". *Global Times*, 2011.9.27.

48) Andreas Seifert, op. cit., p.5.

입장으로 말미암아 갈등을 겪는 남중국해 인접국들은 군비를 확장할 뿐만 아니라 특히 동중국해와 인도양에서 중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두 강대국, 일본과 인도"<sup>50)</sup>로까지 군비확산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한편, 오바마가 대통령직을 시작했을 때 특히 중국을 우호적 동반자로 간주하여서 함께 협력하고자 했으나, 중국이 파트너로서보다는 경쟁자로서 미국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미국은 우호적 파트너 전략을 포기하게 된다. 특히 남중국해 분쟁을 둘러싸고 중국은 분쟁당사국들과 이미 공격적 헤게모니 싸움을 시작하였고, 남중국해 거의 전체가 중국에 속한다는 주장은 인접 국가들에게 큰 도발이 되었다. 미국의 외무장관 힐러리 클린턴은 2010년 7월 하노이에서 열린 ASEAN 회의에 참석했을 때, 미국은 태평양의 전통적 영향권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이것은 미국의 "국가적 관심사"<sup>51)</sup>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중국은 이 건방진 도발을 막아야 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 압력을 행사해야 한다. 중국은 무릎까지만 물에 잠기지만 다른 국가들은 목까지 물에 잠기게 될 것이다"<sup>52)</sup>라고 중국 관영신문 "글로벌 타임즈"의 사설은 호전적으로 분쟁당사국들에 대해서 경고의 글을 썼다. 결국 동남아 국가들은 미국에 보호를 구하게 되었고, 심지어 싱가포르의 국부 이 관유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중국은 너무나 커져서 앞으로 20년에서 30년까지는 중국의 무게와 기능

49) Till Fährnders(2012), "Südchinesische Meer Unfallgefahr in der Badewanne", *Frankfurter Allgemeiner Zeitung*, 2012.4.25.

50) Andreas Seifert, op. cit., p.4.

51) Mark Landler(2010), "Offering to Aid Talks, US Challenges China on Disputed Islands", *The New York Times*, 2010.7.23.

52) Christoph Hein, op. cit.



성에 맞선다는 것은 나머지 아시아 국가들로서는 불가능하며, 우리는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미국이 필요하다 (...) 21세기는 태평양에서의 주도권을 두고 패권경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곳에 성장이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태평양에서 입지를 구축하지 못하면 세계의 지도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sup>53)</sup>

결국 동남아 국가들의 요청이 미국의 아·태 전략과 이해관계가 일치하면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힘으로 등장한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가 태평양권을 미국 외교정책의 새로운 주요지역이라고 공식적으로 천명한 이후 이 지역은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의 핵심지역이 되고 있다. 왜냐하면 미국은 아·태 지역에서 군사적, 경제적 영향력을 더욱 돈독하게 구축하고자 하며, 이 지역에 “군대주둔을 강화하고 있기”<sup>54)</sup> 때문이다. 미국이 아·태 지역에서 동맹을 강화하는 것은 단지 중국의 패권을 자체 시키기 위한 목적에서만 나온 것이 아니라 열세에 놓여 있는 동맹국들을 안도시키는 측면도 강하다.

오바마 정부가 미국의 아시아 귀환을 천명한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하나는 경제적 이유에서, 즉 중국과의 대외무역에서 큰 손실을 경험하고 있는 미국은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동남아에 대한 투자를 증대하고자 한다. 그래서 “미국과 동남아 국가들과의 경제관계 강화는 미국의 아시아 전략의 본질적 요인”<sup>55)</sup>이 되고 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외교 및 안보 전략 관점에서 미국은 동남아 약소국들과의 관계개선 및 군사, 정치, 경제협력 체제를 구축하고자 한다. 기존의 군사 동맹

53) mic, “China öffnet die Büchse der Pandora.” *WELTINNENPOLITIK. NET.* op. cit.

54) Christoph Hein, op. cit.

55) Andreas Seifert, op. cit., p.5.

국들(한국, 일본, 필리핀, 베트남)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 이외에도 특히 중국과 긴밀한 경제관계에 놓여 있는 버마,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와 같은 국가들로 하여금 북경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려는 의도도 있다. 그래서 2012년 7월 힐러리 클린턴은 미국 대표로서 라오스를 50년 만에 방문했다. 또 캄보디아의 부채 탕감 요구에도 화답했다. 그밖에도 버마의 대통령을 만나서는 이 나라에 대한 경제제재 해제 이후 미국의 경제 협력을 언급했다. 독일의 한 언론은 클린턴의 행보를 다음과 같이 보도하고 있다.

클린턴의 외교적 변화 행동은 아시아에서의 미국 군사적 행진을 동반하였다. 남중국해와 말라카 해협과 같은 중요한 교차점들은 미국의 전략적 계획에서 핵심적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 아프리카, 극동으로 가는 중국 해상 통행로를 단절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게다가 오바마 정부는 호주 및 싱가포르와 미군 주둔 협정을 체결했고, 필리핀과도 유사한 협정을 추구하고 있다.<sup>56)</sup>

결국 남중국해를 둘러싼 중국의 패권주의는 각 개별 국가들로 하여금 더 강력한 미국의 참여를 원하는 결과를 낳았다. 예를 들면, 1990년 미군 기지를 철수시켰던 필리핀은 오히려 미국이 귀환하기를 바라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것이 궁극적으로 분쟁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그들의 소망을 받아들이고 이 지역에서 미국의 입지와 중요성을 강화하고 있다. 그래서 중국과 미국을 포함해서 “남중국해 영토 분쟁과 경제적 관심에 관련된 많은 당사국들과 관여로 말미암아 군사적 균형의 틀에서 균비확산으로 고조되는 경향을 지닌 복잡 미묘한 상황이

56) Peter Symonds, op. cit.

아시아 전체에서 형성되고 있다.”<sup>57)</sup>

독일의 한 언론은 남중국해가 국제해로로써 중요하기 때문에 “수출국 독일은 남중국해 분쟁이 COC 제정과 같은 평화적 해결이나 아니면 국제재판소에서 판결이 나와 조속히 진정되기를 바라고 있다”<sup>58)</sup>고 보도하였다. 그러면서 베트남과 필리핀은 중국의 호전적 출현으로 말미암아 미국에 접근하였으며, 분쟁수역에 민간인 배들과 군사용 배들의 잦은 출몰로 인해서 충돌, 도발 및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고 보았다. “특히 이곳은 인접국들이 해군과 공군력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위험해지고 있다.”<sup>59)</sup> 그밖에 중국은 ASEAN 회원국들을 미국의 주도권을 약화시키는 완충지대로 삼고자 했으나 결과적으로 미국을 불러들인 셈이 되었다. 왜냐하면 남중국해 인접국들은 “중국에 대한 증가하는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이 지역에서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는 것으로 반응하고 있기”<sup>60)</sup> 때문이다.

또 다른 독일 언론은 중국의 호전적이고 공격적인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은 중국의 패권과 내셔널리즘에서 기인하고 있으며, 이로 말미암아 “중국과 분쟁을 겪는 다른 당사국들이 미국의 관여와 개입을 요청함으로써 현재 남중국해를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의 새로운 헤게모니 다툼이 대두”<sup>61)</sup>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과 인도가 대치상황에 빠져들고 있다. 왜냐하면 중국이 다국적 석유회사에 베트남 연안에서 약 70km 떨어져 있는 9개의 유전지대를 제공하였고, 인도는

57) Andreas Seifert, op. cit., p.6.

58) Till Fährnders(2012), “Gefährlicher Wettlauf. Wem gehört das asiatische Mittelmeer?” *Frankfurter Allgemeiner Zeitung* 2012.8.9.

59) Ibid.

60) Ibid.

61) Christoph Hein, op. cit.

이미 베트남으로부터 이 유전지대 가운데 2곳을 약속받았기 때문이다. 이로써 인도석유회사 ONGC와 중국의 CNOOC가 베트남 근처 수역에서 대치하게 된 것이다. 러시아와 최근 인도의 국영에너지 기업들을 끌어 들인 베트남의 결정은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치적 결정인 것이다. 왜냐하면 다국적 “공동기업은 재정적, 경제적 부담뿐만 아니라 정치적 위험부담도 나누는 것”<sup>62)</sup>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고찰한 바와 같이, 남중국해의 분쟁지역에 대한 영유권의 근거가 각국마다 명확하지 못함으로써 힘을 앞세운 중국의 공격적 주장에 분쟁대상국들이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방어하는 양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과 필리핀의 공동해상훈련이 남중국해에서 2012년 4월 15일부터 27일까지 12일 간 실시되었고, 미국과 베트남의 합동해상군사훈련도 4월 23일에서 27일까지 5일간 다낭에서 실시되었다. 이에 대해 중국은 거의 비슷한 시기인 4월 22일부터 27일까지 6일간 러시아와 함께 서해에서 공동 해상군사훈련을 실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2012년 10월 20일 미국은 핵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를 남중국해로 파견했고 5천명 군인이 승선한 이 핵 항공모함은 “지난 3년 사이 세 번째로 베트남 해안으로”<sup>63)</sup> 갔다. 합대선장 그레고리 펜튼은 이 항공모함의 파견목적은 이 “해역을 갈등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국제법 준수를 감시하는 것이라 했다.”<sup>64)</sup> 미국의 항공모함 파견은 중국이 2012년 10월 19일 남중국해 섬들 앞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한 것에 대한 대응의 성격도 지니고 있는데, 이것은 중국에 경고를 보내는 군사력의

62) Ibid.

63) dapd(2012), “US-Machtdemonstration im Südchinesischen Meer.” *DIE WELT*, 2012.10.20.

64) Roman Elsener(2012), “Amerikaner demonstrieren Macht im Pazifik.” *NZZ am Sonntag*, 2012.10.21.

과시이자, 이 지역에서 오랫동안 진행되는 분쟁에 관여하고자 하는 미국의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이와 관련 미 국방장관 레온 파네타는 남중국해는 “미국의 경제와 안보를 위해서”<sup>65)</sup>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중국에 비해서 미국은 전통적인 패권, 다시 말하면 지역안보와 세계무역해로 보호 및 중국과 분쟁하는 ASEAN 국가들을 지원하는 형태로 아·태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동중국해 센카쿠를 둘러싼 중국과 일본의 분쟁에서 미국은 간접적으로 동맹국 일본을 지원하는 입장을 취했고, 남중국해에서는 ASEAN 분쟁 대상국들과 함께 분쟁에 직접 관여함으로써 중국과 미국이 대립하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또한 분쟁을 겪고 있는 사이 중국은 자국 경제발전에 필요한 에너지자원을 바다에서 채굴함으로써 실질적 이익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더 나아가서 중국은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영유권 주장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산샤’ 시 창설과 같이 자국 법을 동원해서 정치적인 공세도 동시에 구사하고 있다.

#### 4. 중국의 남중국해 지배를 위한 ‘산샤’ 시 창설

2012년 6월 21일 산샤는 가장 작은 중국의 신도시가 되었으며, 중국 국가 위원회는 중국이 점령하고 있는 파라셀 제도에 속한 용시양(永興島 영어명: 우디 아일랜드)에 새로운 자국의 658번째 초미니 도시를 건설하였다. 산샤라는 이름은 “세 개의 모래 사구”라는 뜻이며, 여기서 시사, 동사, 난사 제도의 이름이 나왔다. 이 산샤 시는 2㎡를 조금 넘는 초미니 시이며 중국의 하이난에서 350km 떨어져 있고, 2012년 7월 23일 농업담당 공무원이었던 51세의 시아오 지예가 새로운 시장으로 임명

65) News ORF.at(2012), “USA wollen Signal senden”, ORF, 2012.10.20.

되었다. 산샤 시 창설은 남중국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오래된 전략의 산물인데, 2007년 11월 중국 인민위원회는 하이난 지방정부가 제출한 산샤 신도시 계획을 허가하였다. 이로써 중국은 남중국해의 관리와 영유권을 확실히 하고자 하였고, “이 새로운 시는 200개의 섬들에 있는 13m<sup>2</sup>의 육지, 모래 사구와 암초들에 대한 행정적 주권을 행사하여 2백만m<sup>2</sup> 이상의 남중국해 수역을 다스린다.”<sup>66)</sup> 산샤 시의 소재지 우디 아일랜드는 천 명이 채 살지 않는 작은 어촌 마을이지만, 이곳에는 “항구, 비행장, 병원, 은행, 우체국”<sup>67)</sup> 등의 사회적 인프라가 이미 구축되어 있다. 또 2012년 7월 19일 북경의 국방위원회는 산샤 시에 자국의 군대주둔을 허락하였다.

이러한 중국의 공격적이고 도발적 결정은 남중국해의 분쟁대상국인 필리핀, 베트남 및 동맹관계에 있는 미국에까지 그 파장이 미치고 있다. 지금까지 나타난 남중국해 분쟁과 위협이 관련국들 사이에서 전쟁이나 무력충돌로 비화될 가능성은 적다고 볼 수 있지만 어떤 작은 계기만 주어지더라도 내셔널리즘 확산이나 극심한 갈등으로 격화될 수 있는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다. 그래서 ICC는 결론적으로 남중국해 분쟁에서 벌어지는 각 이해 당사국들이 취하는 일련의 조치는 “이 지역에서의 모든 경향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sup>68)</sup>고 경고하고 있다. 중국은 일방적으로 자국 법으로 남중국해의 주요 제도들을 산샤 시 관할 하에 두겠다고 공표했을 뿐만 아니라 자국 및 해외 국가와 컨소시엄으로 이 지역 일대의 석유와 가스 자원 개발에 적극적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였다. 무엇보다도 중국이 치밀하고 발 빠른 행보에 분쟁당사국들은

66) Lan Xinzhen, “Sansha, die neue Stadt am Meer”. *Im Focus*. 2012.7.10.

67) Ibid.

68) International Crisis Group(2012). *Asia Report No. 229*. 2012.7.24.

분노, 내셔널리즘 확산, 군비확산 및 미국과의 협력강화 등을 통해서 대치하고 있다. 이에 대해 ICC는 “권리 주장을 하는 모든 국가들은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다. 그 사이 점점 커져가는 내셔널리즘이 각 국가마다 영유권 문제에서 점점 더 부상하고 있다”<sup>69)</sup>라고 지적하였다.

그밖에 중국의 산샤 시 창설보다 먼저 베트남이 2012년 6월 의회에서 남중국해의 분쟁 제도들인 파라셀 군도와 스프래틀리 군도를 자국 영토라는 것을 천명하는 법안을 가결하였다. 이에 대한 중국의 반응은 이미 준비되어 있던 산샤 시 창설 발표로 나왔다. 이렇게 베트남과 중국은 경쟁적으로 자국 법을 통해서 남중국해 분쟁수역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

### Ⅲ. 결론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의 경제 실리적 패권과 베트남 및 필리핀의 요청에 의한 미국의 전통적 패권이 남중국해를 둘러싸고 지난 2년 그 어느 때보다도 극명하게 충돌하였다. 앞으로도 중국의 패권주의로 말미암아 남중국해와 동중국해를 둘러싸고 평화보다는 분쟁이 더 빈번하게 발발하는 양상이 두드러질 것이다. 왜냐하면 중국은 해양 분쟁에서 협상의 여지를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1996년 이후 UNCLOS 회원국임에도 불구하고 이 협약의 테두리와는 상관없이 자국 법으로 남중국해 분쟁제도들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전략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중국은 분쟁지역의 실효적 지배를 통한 영유권 주장이나 EEZ 경계확정 미합의를 통해서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포기하지

69) Christoph Hein, op. cit.에서 재인용.

않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남중국해 분쟁수역을 둘러싼 해결은 쉽지 않다. 물론 남중국해처럼 넓은 바다의 경우, 인접국들의 EEZ가 겹치지 않기 때문에 UNCLOS에 의거해서 200해리 EEZ 경계확정을 하고 나머지 수역은 관련 인접국들의 공동개발이나 관리를 하면 분쟁이 해결될 수 있다. 하지만 중국이 EEZ 경계확정을 하지 않은 채 분쟁을 일으키면서 에너지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만 크게 관심을 둔다면 평화로운 해결방안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하다.

이로 말미암아 남중국해에서 이뤄지고 있는 초강대국의 패권 경쟁은 아·태 지역에서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의 군비확장은 동남아시아 및 동아시아 국가들에까지 그 추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패권을 억제할 수 있는 평화적 방안이나 공동개발협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중국에 맞서서 미국과 함께 아시아 국가들이 대항해야 하는 대척상황으로 더욱 빠져들 것이 자명하다. 실질적 해계모니를 쥐고 있는 중국의 입장이 전향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남중국해를 둘러싼 이러한 대척상황은 미래의 불안요인으로 남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국의 패권을 억제시킬 다양한 평화적 방안이나 협상이 ASEAN, ARF, 미국, 유럽연합과 함께 시급히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남중국해를 둘러싼 중국의 실효적 지배 전략에 비추어 볼 때, 한국이 동아시아의 거대한 이웃 국가들과 힘겨운 분쟁을 겪고 있으나 독도와 이어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점은 한국에 결코 불리하지 않다. 왜냐하면 중국이 남중국해 분쟁제도를 실효적으로 점령하거나 점령하기 위한 시도가 오히려 이어도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한국에 유리한 입장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중국은 한국과 EEZ 경계확정 합의를 하지 않은 채 대륙붕 자연연장에 의거해서 동중국해에서도 패권주의를 고수하겠지만 중국은 이미 논리적 모순을 보이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이어도와 관련한 중국의 주장에 맞설 수 있는 국제법적 증거확보와 더욱 더 실효적 지배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중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EEZ경계확정 추구를 하지 않으면 남중국해 분쟁사태처럼 중국의 패권주의에 한국 또한 미국의 협력에 크게 의존하게 되는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다.

참고문헌

- 엄상윤(2012), 「프놈펜 ARF 외교장관회의와 동아시아 안보정세」, 『정세와 정책』, 2012. 8월호.
- Cordner Lee G (1994), "The Spratly Islands Dispute and the Law of the Sea". *Ocean Dev. & Intl. Law*, Vol. 64.
- dapd, "US-Machtdemonstration im Südchinesischen Meer". *DIE WELT*, 2012.10.20.
- Dzurek Daniel J. (1994), "Southeast Asian Offshore Oil Disputes", *Ocean Yearbook* 11.
- Ebbighausen Rodion, "Chinas Konflikte im Südchinesischen Meer." *DW* 2012.4.24.
- Elsener Roman, "Amerikaner demonstrieren Macht im Pazifik". *NZZ am Sonntag*, 2012.10.21.
- Erling Jehnny, "Rote Linien im 'brodelnden' Südchinesischen Meer." *Die Welt*. 2012.8.21.
- Fähnders Till, "Südchinesische Meer Unfallgefahr in der Badewanne", *Frankfurter Allgemeiner Zeitung*. 2012.4.25.
- Fähnders Till, "Gefährlicher Wettlauf. Wem gehört das asiatische Mittelmeer?" *Frankfurter Allgemeiner Zeitung* 2012.8.9.
- Gao, Zhiguo(1994), "The South China Sea: From Conflict to Cooperation?", *Ocean Dev. & Int'l Law*. 345.
- Geinitz Christian, "Tiefseebohrung China sichert sich im Meer Öl und Einfluss". *Frankfurter Allgemeiner Zeitung*. 2012.5.20.
- Haller-Trost R. (1994), "International Law and the History of the Claims to the Spratly Islands",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Conference on the South China Sea, Sept. 7-9.
- Hein Christoph, "Südchinesisches Meer Säbelrasseln über dem Meer". *Frankfurter Allgemeiner Zeitung*. 2012.8.11.
- International Crisis Group(2012), *Asia Report* 223.

- International Crisis Group(2012). *Asia Report 229*.
- Li Mingjiang(2012), "Chinese Debates of South China Sea Policy: Implications for Future Developments," *RSIS Working Paper*, No. 239, Rajaratnam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Singapore.
- McBeth John(1995), "Oil-rich Diet", *Far Eastern Economic Review*, April 25.
- mic, "China öffnet die Büchse der Pandora." *WELTINNENPOLITIK. NET*. 2010.8.24. <http://www.weltinnenpolitik.net/24/08/2010/china-oeffnet-die-buchse-der-pandora>. 접속일 2012. 5.5.
- News ORF.at, "USA wollen Signal senden." 2012.10.20.
- Nguyen Hong Thao(2010), *Ocean Development & International Law*, Hanoi.
- Ning Lu(1993), "The Spratly Archipelago: The Origins of the Claims and Possible Solutions", International Center, Washington, D.C.
- Office of the Secretary of Defense(2012), *Annual Report to Congress: 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 Pan Shiyang(1994), "South China Sea and the International Practice of the Historic Title",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Conference on the South China Sea, Sept. 7-9.
- Prantne Christoph. "Konflikt im Südchinesischen Meer: Geopolitischer Testfall", *DER STANDARD*, 2012.5.11.
- Richter Steffen, "Südchinesisches Meer: China demonstriert seine Macht mit einem Fischerdorf." *Zeit Online*. 2012.7.24.
- Seifert Andreas(2012), "Konfliktzone im Südchinesischen Meer. Über die Bedeutung des Konflikts um die Spratly- und Paracel-Inseln". *Informationsstelle Militarisierung (IMI)-Studie*. No. 09/2012.
- South China Sea. [www.eia.doe.gov/erneu/cabs/South\\_China\\_Sea/pdf](http://www.eia.doe.gov/erneu/cabs/South_China_Sea/pdf). 접속일: 2012.6.8.
- Spross Hans, "Spannungen im Südchinesischen Meer." *DW* 2012.4.18.
- Symonds Peter, "ASEAN-Gipfel scheitert an Konflikten ums Südchinesische Meer". *World Socialist Web Site*. [wsws.org](http://www.wsws.org). 2012.7.17.
- Tao Long, "The Time to Use Force Has Arrived in the South China Sea".

*Global Times*, 2011.9.27.

Thieke Thilo, "USA, Russland und China. Kriegsspiele im Gelben Meer", *Spiegel*, 2012.4.26.

Tran Truong Thuy (ed. 2011), *The South China Sea. Towards a Region of Peace, Security ad Cooperation*, Vietnam.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1982, December 10] , *Oceans and Law of the Sea. Division for Ocean Affairs and the Law of the Sea*.

Valencia Mark J. / Van Dyke Jon M./ Ludwig Noel A(1999). *Sharing the resources of the South China Sea*.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Valero Gerado M.C(1994), "Spratly Archipelago Dispute", *Marine Policy* 314.

Xinzhen Lan, "Sansha, die neue Stadt am Meer". *Im Focus*. 2012.7.10.

Zhang Liangfu(1995), "Review on the Informal Conferences on 'Settle the Potential Conflict in the South China Sea'", *International Politics Quarterly*

[http://www.eia.gov/EMEU/cabs/South\\_China\\_Sea/images/scs\\_II.map.gif](http://www.eia.gov/EMEU/cabs/South_China_Sea/images/scs_II.map.gif). 접속일 2012.5.6.

[http://www.goruma.de/Wissen/Naturwissenschaft/Weltmeere\\_Meere/Suedchinesisches\\_Meer.html](http://www.goruma.de/Wissen/Naturwissenschaft/Weltmeere_Meere/Suedchinesisches_Meer.html). 접속일: 2012.5.9.

<http://www.southchinasea.org/files/2011/08/South-China-Sea-reference-map-US-CIA.jpg>. 접속일: 2012.5.9.

**Abstract**

**Analysis of the Chinese Supremacy in the South China Sea  
: A Western Point of View**

Kim, Hi-Youl\*

This analysis is divided into two parts, analysis of the conflict zones in the SCS and how China shows its supremacy. The SCS is the most important marginal sea in the world through which more than 50% of the world's ships transit. More importantly the SCS is known to have a reservoir of huge oil and gas reserves beneath its seabed, adding to its importance in geopolitics. The sovereignty claims to the SCS have been a source of dispute between China, which claims its sovereignty over almost all of this territory, including Paracel Islands, Spratly Archipelago, and Scarborough Shoal in the SCS and other Southeast Asia countries (Vietnam claiming the Paracel Islands, Vietnam, the Philippines, Malaysia, Brunei claiming the Spratly Islands, the Philippines claiming the Scarborough Shoal). As China has been reinforcing its supremacy by increasing its military force, strengthening national law, and establishing a new city 'Sansha' to exercise authority over the SCS, the disputing countries, especially Vietnam and Philippines have - with the help of the US - raised the issue against China.

The US, along with Southeast Asia countries which ask for help, has been in the lead to impede China's supremacy since it solidified the Policy of the Asia-Pacific Region in 2010. Accordingly the dispute over the SCS has led to a conflict between US's hegemonism and China's supremacy and led to a build up of the military equipment in Asia-Pacific countries,

---

\* Professor. German Studies, College of Humanities, Jeju National University.

which has caused considerable political unrest in the Asia-Pacific region. Unless there is a peaceful scheme or a joint development treaty to restrain China's supremacy, the conflict between China and other Southeast Asian countries as well as the US would be intensified. While China keeps causing conflicts against other neighboring countries, it is gaining economical profit through development of oil deposits. Thus China is exercising its practical supremacy over the East China Sea as well as over the SCS.

Although presently Korea is undergoing hardships in disputes about Dokdo and Ieodo with huge neighboring nations, Korea is in a more favorable position but needs to find various ways of practical governing of those regions. The historical evidence of governing is important, but through the case analysis of China's supremacy it is concluded that practical governing is the most important way for Korea to claim the authority over those regions against Japan, which itself claims its sovereignty over Dokdo against Korea and China, that ignores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UNCLOS) of 1982, reinforcing its own practical governing and claims of sovereignty over Ieodo.

#### Key Words

dispute countries in SCS, chinese supremacy in SCS, hegemony conflict between China & USA in SCS

교신 : 김희열 690-75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교 102(아라일동, 제주대학교)  
 (E-mail : hiyoul@jejunu.ac.kr)

논문투고일 2012. 12. 03.  
 심사완료일 2013. 02. 05.  
 게재확정일 2013. 02. 15.